

3 가지 핵심 제자훈련 모임

BY TODD MORR



WWW.MISSIONALMADESIMPLE.COM

3 가지 핵심 제자훈련 모임

각각의 모임은 독특하며, 필수적이다. 또한 각각의 모임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다. 하나의 온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세가지 모임 중 한 모임이 홀로 이루어 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각 모임은 그 모임만이 갖는 고유의 환경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각 모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자 삼는 과정 가운데 이 세 모임 중 하나만 빠지더라도, 우리가 제자 삼는 대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주일 모임

보통 1.5-2 시간 정도의 모임 시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적, 정서적, 그리고 학습의 역동성이 존재한다. 한 마음을 품은 다수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갈 때 더 큰 위로와 격려, 흥분, 그리고 동기부여가 주어진다.

주일 모임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삶의 간증을 나누고, 구성원들의 필요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양한 은사, 성격, 경험들,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가 가진 자원들이 나누어 지며, 더 큰 영향력을 위한 잠재력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주일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환경 가운데서는 배울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진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선교적 공동체

이것은 서로의 인생에 헌신된 제자들의 모임이다. 선교적 공동체는 일주일에 하루 모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한주 내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선교적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다. 선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보통 주일 오전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일반적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중에 함께 보내게 된다.

선교적 공동체의 삶은 다른 모임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모습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선교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형식적이거나 격식을 차린 모임이 아닌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는 관계를 서로 나누기 때문이다.

선교적 공동체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과 같이 서로를 돌보며, 가족끼리 소통하듯 서로 대화하고, 가족과 같이 깊은 수준으로 서로를 알고 있고, 가족으로서 선교적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한다. 다른 모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헌신과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선교적 공동체는 적은 숫자의 인원로 구성되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집중되어 있고, 삶을 함께 공유하는데 더 유동적이며 창조적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공원이나 혹은 다른 공공 장소에서 모이기도 한다. 또한 적은 숫자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하고 관리하기에 수월하다.

선교적 공동체는 제자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 대부분은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주고 그것을 좇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주일 모임과 DNA 모임에서는 머리와 가슴의 수준, 즉 지적 및 정서적 수준으로 영적성장이 이루어진다. 반면 선교적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 행동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선교적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주신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DNA 그룹

여기서의 DNA는 발견 (Discover), 양육, (Nurture), 행동 (Act)의 줄임 말이다. 다른 교회들은 Gospel Triplets (복음의 세 쌍둥이), Life Transformation Groups (LTG's: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등의 다른 이름들을 쓰지만, 그들의 기능은 DNA 그룹과 동일하다. DNA 그룹의 모임은 보통 2-2.5 시간 지속된다. 이 그룹의 특징은 각 성별이 나누어져서 3-5명 정도의 작은 숫자로 모인다는 것에 있다. 즉, 3-5명으로 이루어진 여성 그룹 혹은 3-5명으로 이루어진 남성 그룹으로 모이게 된다. 각 성별의 민감한 내용까지 깊게 열어 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그룹이다.

그룹의 구성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고, 보통 8-14명의 성인으로 이루어진 소그룹보다 DNA 구성원들은 더 높은 차원의 참여도를 갖게 된다. 각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서로가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 뒤에 "숨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DNA 그룹 속에서 성장하고 대화하며,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가?

제자훈련의 3 가지 핵심 모임에 대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몇몇 원리들이 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머리, 가슴, 손의 영역이 충족되어야 한다. 머리 영역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가슴 영역은 동기/ 확신/ 신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확신과 신념대로 살아간다. 손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 속의 확신, 신념, 우선 순위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행동들과 관계들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 낸다.

우리의 머리, 마음, 손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까?

- **가르침:** 성경적 진리가 우리 인생의 사소한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게 한다.
- **모델이 되어 주기:** 매일 겪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
- **경험:** 자신에게 모델로서 제시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제적으로 각자의 손으로 연습하고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반영하기 (코칭/목양):** 성경적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모델로 제시된 삶을 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서로 논의한다.
- **초자연적 역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 마음, 손에 영향력을 끼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상기시키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신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장하도록 돕는 분이시다. 성령님이 바로 선교적 영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손'이 성장케 하신다.

